

国立民族学博物館における韓国展示について

著者	伊藤 亜人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214-217
発行年	2000-07-24
URL	http://doi.org/10.15021/00002234

国立民族学博物館における韓国展示について

伊藤亞人（東京大学）

日本人にとって韓国はもっとも近い隣国であり、歴史的にみても他の国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緊密な関係にある。その関係はかつての植民地支配は言うにおよばず、国交正常化以後においても時には過度な競争意識や緊張をもたらすことがあったが、それも両国が地理的に近いばかりでなく、文化的にも一見して近すぎることに由来する緊密な関係にとまなうもののように思われる。とりわけ近年の文化交流の拡大は、両国民の間にこれまでにない幅広い関心を呼んでおり、人々の往来はすでに航空便の許容量を越えるにいたっている。情報量の点でも、両国民の間ではほとんど日常的な次元で他の国とは比較にならないような大量で広範な情報もたらされていることにも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うした両国の特別に緊密な関係を考えると、博物館における展示の面でも韓国については量的にも質的にも特別な位置づけ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ともと民族学博物館というものは欧米の例を見ても、遠方の異文化社会の生活像を限られた空間の中で効果的に展示・紹介することに主眼を置いてきたといえる。したがって、その展示の在り方においても、その文化の膨大な物質文化の中から数少ない特異で象徴的な物を意図的に採り上げてきたようである。その程度のイメージの共有が目標となっていたといえる。韓国についてもかつての展示はそのようなイメージ展示の域を出なかったものであった。しかし今日の状況はまったく異なっている。今後の展示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日常の交流において共有されているイメージの枠に留まらない、広い生活領域にわたるバランスのとれた展示である。したがって他の国とは別格の広いスペースが必要となるのも隣国なれば当然なのである。それが許されない現状において、象徴的な展示がそれなりに有効であるのは十分に理解できるし、韓国の文化・社会の専門研究者が見れば、展示の担当者がそうした制約の中で下した判断もすべてそれなりに理解できるものである。しかしその一方で、そうした制約の中でも従来の象徴的な展示と並行して隣国の人々の生活をもうすこし生き生きと展示する試みもあって良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つまり、数少ない象徴的な物を選んで展示する手法とは逆に、出来るだけ無作為に多くの物をありのままに展示するような意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한국전시에 대하여

伊藤亞人(東京大學)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관계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는 말할 것도 없으나,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때로는 과도한 경쟁의식이나 긴장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그것도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긴밀한 관계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최근의 문화교류 확대는 양국민 사이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적 왕래는 이미 항공편의 허용량을 넘어설 정도에 달하였다. 정보량이라는 관점에서, 양국민 사이에는 거의 일상적인 차원으로,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의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양국의 특히 긴밀한 관계를 생각하면, 박물관의 전시면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하여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특별한 위치부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래 민족학박물관이라는 것은, 서구의 예를 보더라도, 먼 이문화 사회의 생활상을 제한된 공간내에서 효과적으로 전시·소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 전시가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도,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물질문화 중에서 소수의 특이하고 상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다룬 것 같다. 그 정도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 관하여서도, 여태까지의 전시는 그와 같은 이미지 전시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향후의 전시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일상교류에 있어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넓은 생활영역에 이르는 균형있는 전시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넓은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도 이웃나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현 상황에 있어서 상징적인 전시가 그런대로 유효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사회의 전문 연구자가 보면 전시 담당자가 그러한 제약속에서 내린 판단도 그 나름대로 모두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제약속에서도 종래의 상징적인 전시와 병행해서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실감나게 전시하려는 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적은수의 상징적인 물건을 골라서 전시하는 수법과는 반대로, 될

図的な試みなどが考えられる。例えば、庶民の生活に密着した小店とか、都会の子供部屋とか、今日の農家の部屋をありのまま再現するような試みである。すでにさまざまな情報もたらされている韓国に対しては、案外盲点となっている生活の実像を紹介するにはこうした手法も試みてよいように思われる。観覧者は、そこに展示された多くの物を一つ一つ目で追いながら、自分たちの身の回りと比べながら、より具体的に韓国人の生活に親しみを抱く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かろうか。つまり、観覧者も想像したり回想したりしながら、展示に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隣人の生活を確認するような過程こそが望まれ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機会があれば、他の国の展示に先がけて韓国についてはそうした参加型の展示装置を試みて欲しいと思うのである。

수 있는한 무작위로 많은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전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민생활에 밀착된 작은 가게라든가, 도시의 어린이 방이라든가, 오늘날의 농가의 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은 시도이다. 이미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 있는 한국에 대하여서는, 의외로 맹점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실상을 소개하기에는 이와 같은 수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관람자는 거기에 전시된 많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생활 주변 모습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의 생활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친근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즉, 관람자도 상상하거나 회상하면서 전시에 참가함으로써 인해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확인해가는 과정, 그러한 것이야말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회가 닿으면 다른 나라의 전시에 앞서 한국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참가형 전시장치를 시도해보고 싶다.